

## 부처님 오신날 行事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초파일은 예로부터 불가의 4대 명절중 가장 성대한 명절이다. 초파일에는 절에 등을 달아 부처님이 이 땅에 내려온 一大事를 다시한번 만민에게 깨우쳐 주기도 하고, 부처님과 세상 중생들과의 인연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날이다.

이 날 모든 절에서는 불자들이 등을 만들어 信心의 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하면서 부처님께 예불을 한다. 등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바치는 일이고, 탑돌이를 하는 것은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고 생과 사가 한자리에 있는 인연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자수는 불교계의 집계에 따르면 약 2천만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런 숫적인 개념을 떠나서 부처님 오신날은 우리 국민정서와도 잘 어울리는 날이기도 하다.

본지는 지난 3월호 본란에서 '부처님 오신날' 엔 연꽃케이크를 이라는 제목으로 이날을 우리 업계의 새로운 이벤트로 정착시키자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發想을 처음으로 내놓은 천안 뉴실크로드의 정관수사장을 조명하고, 또 그가 연구한 몇가지의 기획상품도 아울러 게재했다.

본지는 여기에 뒤이어서 지난 3월 9일 업계의 중진들과 불교계 인사를 초청, 행사에 대한 가능성과 추진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호 81~87쪽 참조)

그 결과 '부처님 오신날' 이벤트는 꽤 가능성이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크리스마스에 못지 않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본지는 나름대로 업계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행사취지에 공감, 적극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행사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사실 우리 업계의 特需節인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 사회 일각에서는 '국적없는 명절'이라는 지탄도 많이 했지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처님 오신날은 우리 국민정서에도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업계의 명절로서 희망이 있는 '부처님 오신날'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전국 과업인들의 동참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행사의 발원은 개인일지라도 본격적인 업계의 명절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과업인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불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지나친 상흔에 치우치지 않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품을 연구하고 정확한 소비타겟을 설정, 지속적인 시장전략을 펼쳐 나가야만 된다. 그리고나서 느긋한 마음으로 성과를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생각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 시장규모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불자수를 불교계가 밝히는 2천만에서 그 절반인 1천만으로 하고 이중에서 10%만 1만원짜리 연꽃케이크를 하나씩 산다면 어렵잖아 1백억 시장이 되는 것이다.

손꼽아 가만히 생각하면 계산상으로야 금방 대단한 시장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렇게 대단한 것을 왜 여태 시작도 못해 봤을까' 라는 후회 아닌 후회도 할지 모르지만 간단할 것 같으면야 아마 그동안 누가 기발한 생각을 해서 특특히 재미를 봤을 일이다. 그러나 모든게 그렇듯이 계산상의 짐작과 실제상황은 경우에 따라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치밀한 기획과 끈기있는 인내가 뒤따라야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3년이나 5년쯤 지났을때 협회를 구심점으로 한 이런 노력이 구체적인 우리의 시장으로 다가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지면을 통해 전국 과업인들의 동참을 간절히 빌어본다.